

윤석열 대통령,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통합위원들의 역할 당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연대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

략'을 내어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과제 12개를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3개 특위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자살 위기극복'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을 제시했고,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사기 근절'특위는 ▲시활용 사기경로 차단 ▲세대별 사기예방 교육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3개 특위 모두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민감하고 체감이 큰 과제들인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광수/기자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 리더와의 만남 개최

경북 연고 재외동포 청소년 6개국 44명, 연수 프로그램 참가
K-디아스포라 경북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10일간의 여정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다.

방문단은 6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남아공·러시아) 44명으로 지난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계를 넘어 세계로 Beyond Boundaries, Beyond Dreams》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5韓과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의 경북 4대 정신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K-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예(禮)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청 화백당에서 우리 선조들이 성장한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례를 진행했다.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남자

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관례,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진행했다. 성년례를 통해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됨을 인정받는 유교 전통 의례를 체험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도원 아참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은 큰 손님으로 초대해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성년식 의례 행사를 함께 축하했다.

한편, 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 정도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과는 문화·언어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를 추진연대를 구성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2월 한민족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에 동참하고 경상북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시·도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 곳곳에 있

는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는 실로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글로벌 한류와 단기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자부심과 정체성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서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기 바란다"라며, "경북의 뿌리와 길을 알고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미래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하게 주도한다

최태림 위원장,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례」로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9일 개최되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상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졌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가 다가올 지방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북이 경북답게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

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제1대 청소년 시의원 42명 의정활동 시작

김현기 의장 “직접 경험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하는 시간 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제1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당선된 초등 학교 5·6학년 42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당선증과 의원배지를 배부했다.

청소년 시의원들은 지난 7~8월에 모집 및 인터뷰, 후보자등록,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23.7.17.~8.12. 2차에 걸쳐 총 55명 모집
 ‘23.8.13.~8.17. 서류합격자 발표, 후보자등록 및 인터뷰 진행
 ‘23.8.18.~8.22.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 실시
 ‘23.8.23.~8.24. 개표 및 당선인 42명 확정
 선출된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본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직접 운영해왔다. 의회교실을 체험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2.8%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일일 청소년의원체제에 한계되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

소년 의회교실을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이 되어 원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 의결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全)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자치 이해도 및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의조례 발의, 안전심사, 찬반토론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대표단 등 시의원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제1대 청소년 시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찬성 또는 반대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 정치이다.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마련된 결과를 존중하는 진정한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격려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 중학교 설립 위한 학교용지 확보 요청”

23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방문, 한문희 사장 면담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23일 14시 한국철도공사(KORAIL)를 방문해 한문희 사장과 면담을 갖고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

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김재운 시의원의 주선으로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부지 내 중학교 유치추진위원회 백옥자 공동위원장,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

원(국민의힘, 부전2, 범천1·2),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전2, 범천1·2), 김동호 前의원 등이 동석하여 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간절함을 전달했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지 내 핵심지역에 학교 용지 확보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인해 지난 110여년간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소음과 분진은 물론 지역간 단절, 교통 불편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히 범천동 지역의 학생들은 2005년 개성중학교가 이전한 이후 18년 동안 전포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한문희 사장은 부산시의 의견 조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해온 범천동 지역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은 1904년 건설되어 120년 가까이 지역발전의 결실들이었으나, 이전 사업이 2020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7년까지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지난해 공개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개발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4만여 m² 부지에 상업시설, 다목적 주거, 생활관접자본시설 등 주거복합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에 나서

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지난 18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의원이 일선에서 직접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조경구 의원을 비롯해 황병욱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석하 범어동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구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을 방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맞이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상담에 참석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객이 많이 감소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경구 의원은 이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구 의원은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고충에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의회, 다양한 측면의 도서지역 맞춤형 보건의료정책 대안 제시

인천 용진군 건강서비스 강화 방안 위한 정책세미나 열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용진 섬 등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 용진군 건강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이훈재 교수가 ‘용진 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결과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용진군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사회로 신영희 시의원, 용진군의회 이종선 의원,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및 인천시 관계자(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혜림 건강증진과장), 박혜련 용진군

보건소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인하대 박수정·서호정(스포츠학과)·안영미(간호학과) 교수, 가천대길병원·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이훈재 교수는 정부의 의료취약지역 지원정책과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사례를 설명하고, 용진 섬 보건의료서비스 효율화 방안 및 용진 섬 의료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남/기자



안양시의회, 2023년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안양시의회는 지난 26일 관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학생들은 청소년의회의 첫 임정인 ‘안양시의회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의회 관련 OX퀴즈를 풀어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에는 2회에 걸쳐 정책제안서 작성 기본교육을 수강했으며, 7월에는 건강·교육·교통·환경 분과 등 4개 분과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해 시의원의 피드백을 받는 ‘시의원 멘토링’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각 분과의 정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2023 청소년의회의 대원들의 막을 내렸다.

최병일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담아내고 토론하고 다들어서 하나의 제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역량이며, 이런 능력을 건강하게 발달시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시의회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보고하는 전체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청소년의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우용/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오 께 나 입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체육·레저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추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4일 목요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한 연속정책토크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레저 정책’에 참석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체육·레저 활성화가 도민의 심신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토론회로 참석하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체육 사업을 통한 광명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과 같이 스포츠 소외계층도 관람할 수 있게 도에서 약 7.7억 원의 도비를 들여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연계 특성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과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도에서 8천억 원을 들여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

고 있기에 이를 광명 스포터에서도 잘 활용한다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유독 광명의 체육 콘텐츠 및 인프라가 열악하기에 이를 확대할 방안을 고

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체육·레저 분야에 대한 논의와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내 체육활동의 다양성과 참여도가 높아졌으면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체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 술페스타’ 참여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로 경기미 소비 촉진에 기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5일 경기도의 전통주 산업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경기 술페스타’에 참여하여 전통주의 원료가 되는 경기미의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과 이병길 위원장을 주관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최창수 원장 등은 경기도 전통주 발굴과 소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면서 참여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통주 시음과 양방향 토크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쌀 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전통주 제조 확대를 통해 경기미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술페스타는 경기도 주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경쟁력 있는 전통주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전통주의 원료인 경기미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음회, 주토크, 경기주류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가유공자 예우 및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3일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경기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이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

에 대한 조치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헌법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우 및 훌륭한 본보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집행부 관계자들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도민 의견 청취 및 의회 역할 강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일방 편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 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영유아 지원대책에 차별 없어야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만 0~2세아 총 173,000명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5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지회장과 영아(만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와 원비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부 사업시행에 따라, 각 교육청이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만 0~2세 영아와 급식비 지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지원계획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누

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이전 영아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신분, 재산,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4일, 6,78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338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유보통합은 정부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정책이다”라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이 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방문, 훈련상황 참관 및 관계자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3일, 2023년 을지연습이 진행중인 경기도교육청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을 진행 중인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리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훈련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실전과 같은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

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호남향우회연합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적극 공감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와 MOU 체결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및 수원시호남향우회연합회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대 활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 △단계 간상호협력 사항 논의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협약서 서명 등 연대 활동을 위한 MOU 체결순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두 단체는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주형수원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시민협의회와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오늘 두 단체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협의회는 경기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상생·협력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최우수' 등급 받아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에게 고품질 수도물 지속 공급에 최선"

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상수도 분야는 전국 기초 상수도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반영한 혁신 노력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평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실적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개 분야의 18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되며, 평가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5개로 나뉘어져 있다.

안양시 상수도는 평가항목 중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과 전문 리더십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에게 고품질의 깨끗한 수도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상수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서해선 일산역 연장 개통 첫날 시민들과 함께 열차 탑승

일산역 이용편의 점검, 출퇴근 시간 증차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요청

지난 25일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선의 일산역 연장 개통식이 고양시에서 열린 데 이어, 연장된 서해선 열차가 8월 26일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개통 첫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 주민들과 함께 일산역에서 서해선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살폈다.

이 시장은 열차 안에서 시민들과 서해선 개통에 대한 감회를 나누고 열차 배차 간격으로 인해 출퇴근 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향후 철도망이 어떤 식으로 확충될지 바라는데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날 이 시장은 열차 탑승 전 서해선 일산역 연장 사업으로 설치된 일산역의 운영 시설과 이용 안내 시설, 승강장 등을 살피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열차

배차 간격의 개선 요청과 열차의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민선8기 주요 사업인 9호선 급행 대곡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GTX-A 노선을 비롯해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중차 등 광역철도망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진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구간은 곡산-백마-풍산-일산 총 4개역으로 경의중앙선을 공용한다. 서해선은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노선으로, 이번 연장 개통으로 대곡-소사 구간이 일산역까지 연장됐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으로 일산-김포 공항 이동 시간은 기존 50분에서 19

분으로 단축되고, 일산-소사구간은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김포공항에서는 5호선, 9호

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이 가능해졌다.

한영기/기자



"청년을 e롭게" 안산시, '숏폼' 활용 마케팅 교육 실시

안산시는 지난 24일 청년창업자의 온라인 판로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숏폼 릴 영상'을 활용한 청년창업 e로운 홍보마케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시범으로 시와(재)경기테크노파크가 협업해 시행하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안산시 청년창업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세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콘텐츠 생성 AI 플

랫폼 루트(한국형 챗GPT) 소개와 활용사례 ▲루트 활용 블로그 상위 노출 포스팅 전략 ▲루트 활용 숏폼 대본 만들기 ▲스마트폰으로 쉽게 만드는 제품 홍보영상 숏폼 제작 및 편집 ▲숏폼 동영상 네이비 및 인스타그램 등록 등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해숙 청년정책관은 "이 교육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의 현업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성남시, 수내교 인접 구간 임시차로 개설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나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현교사거리에 이른 시일내 임시 통행로 개설



성남시는 25일 상습 정체 구간인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에 공공공지를 활용해 우회전 전용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수내교의 전면 사용 제한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시는 즉시 예비비를 투입,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차로

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 임시차로가 확충되면 분당내곡간고속도로에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차량소동이 한층 원활해짐으로써 수내교 인근의 교통흐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퇴근 피크시간대에 수내사거리, 잠월드사거리, 서현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는 모범전자(12명)를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편 시는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8월 내 개최해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1차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해 안전성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내교의 교각 관통 균열과 강도 저하 등 하부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내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보강 공사의 경우 교각 증설 등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 재설치를 하게 되면 최장 2년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 개최

화성시가 2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2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화성화를 도모하고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희망화성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개최됐다.

소통 한마당은 ▲'주민자치로 열어가' 화성 특례시 특강 ▲주민자치회 유공자 표창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희망화성의 염원을 담은 대형박터뜨리기 퍼포먼스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 스스로

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품격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시로 도약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0년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이후 2023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해 왔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해커톤 대회 오는 10월 개최

10월 30일, 탄소배출 등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주제로

인천광역시시는 10월 3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GBIC 2023 해커톤 대회'(GBIC Hackathon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되는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GBIC) 2023'과 연계해 열릴 예정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해커톤 대회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Web3.0)을 활용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로 탄소배출 제로, 지역산업과 도시문제 해결, 시민 서비스 개발 등 인천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과 기술 인력들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하고 발굴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공약으로 Web3.0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는 모집과 선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개 팀이 전문 시스템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가의 멘토링을 거쳐 각 팀이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개발한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하게 된다.

특히, 행사에 앞서 인천시는 인하대학교 및 기술기업(바이낸스, 솔브케어, 루디움)과 함께 블록체인 칼리지를 개설해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을 진행했는데, 칼리지 과정 중 블록체인 해커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이번 해커톤 대회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등 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 2등 팀은 300만 원, 3등 팀은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최종 도출된 아이디어는 별도 논의 후 필요한 경우 사업화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GBIC) 2023」에서 데모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공유 오피스 제공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행사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손혜영 인천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해커톤 대회는 지역의 역량있는 인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고자 개최된다"며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인천시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2023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

인천 지역현안 문제 해결 챌린지

인천광역시와 BURRITO가 함께하는

GBIC 2023 HACKATHON

Global Blockchain Incheon Conference

2023.10.30.(월) 10:00
인천 송도 컨벤시아 302 & 303호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서류 평가	최종 참가자 발표	시상 내역	
신규 접수 ~9월 15일(금)	9월 16일(토) ~ 9월 21일(목)		9월 22일(금)	1등 500만원	
모든 팀의 행사 참여 가능한 당일 투표				2등 300만원	
진행 순서	1	2	3	4	3등 200만원
	지원자 모집 및 참가자 발표	사전 교육	해커톤 및 시상식	GBIC 데모데이 기획	

접수 GBIC 해커톤 홈페이지 | www.gbichackathon.com

주최 인천광역시, BURRITO, ITP 인천테크노파크

용인특례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못 받은 가정에 추가 지원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 통해 접수...지역화폐로 10만원 지급

용인특례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4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3만8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지

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입학준비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용인이라는 생활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년 제2차 용인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월) ~ 9월 22일(금) 18:00까지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중
① 용인(가정) 이사생
② 용인 시 관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③ 용인시에 용인(가정) 이사하고 고교(중)학부생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방법: 용인지역화폐(와이페이)로 지급

신청방법: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통한 신청
① 학생의 용인(가정) 이사생 →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통한 신청
② 학생의 용인(가정) 외 이사생 →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1577-1122 (용인시청내선) 031-324-2488 (용인시 교육정책센터)

시흥시, 청소년이 주도하는 으뜸성장챌린지 '에코박람회' 개최

시흥시청소년부

We are Eco Hero

시흥시청소년부 에코창의기획단 으뜸성장챌린지

2023 에코박람회

#우리는환경ही로 #에코창의기획단
으뜸성장챌린지 #에코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에코ही어 캠페인 #에코전시물 기획

우리의 지구는 언제까지 안녕할까?
영원하지 않은 지구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요

주관 | 결실청소년문화의집, 환경청소년문화의집 | 일시 | 2023.09.02(토) 14시
협력 | 시흥시청소년부, 환경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청소년부, 시흥시청소년부, 시흥시청소년부 | 장소 | 시흥시청소년부, 시흥시청소년부

시흥시는 '제2회 2023년 시흥시청소년부 주도 으뜸성장챌린지 에코박람회'가 오는 9월 2일 시흥시청소년부 초록배곧 야외공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재)시흥시청소년부재단이 진행 중인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는 시흥시 청소년들이 성장 주기별 도전 과제 이수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 특성화 종합성장지원 프로젝트다.

이번 에코박람회는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 선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월곶,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에코창의기획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시흥시 환경단체 및 재단 산하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협력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주도했다. 박람회를 통해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에코박람회는 크게 '해양, 토양, 대기'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별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청소년 공연과 전문 축하공연, 환경 퀴즈쇼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환경 보호를 위해 '현수막 제로(Zero)',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부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체험 부스 운영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생분해, 환경 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한 물품이다. 이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행사가 운영된다. 또,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친환경 에코 선물 세트를 선착순으로 3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흥시청소년부재단은 "2023년 에코박람회는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거리가 많은 만큼, 지역 내 청소년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부천 8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시민대표단 여행 운영

상동호수공원 및 수피아,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아트벙커B39 방문

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 8경 선정 기념으로 특별 기획한 '부천 8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시민대표단 여행을 운영했다.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 30명을 대상으로 부천 8경 중 ▲제4경 상동호수공원 및 수피아 ▲제6경 한국만화박물관 ▲제8경 부천아트벙커B39를 방문하고 연계 방문지로 부천한옥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곳은 제6경 한국만화박물관으로, 시민대표단은 이곳에서 한국만화의 110년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등 만화를 통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부천한옥마을 보자기아트는 나만의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체험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시는 지난달 12일 최종 선정된 부천 8경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천 8경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문화관광해설을 들으면서 부천 8경 중 엄선된 명소를 방문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천문화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부천 8경 시민대표단 투어에 참여해주셨다"며 "시민이 선정한 '부천 8경'을 더

욱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계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전남도, 유럽 최대 축제장서 전남관광 매력알려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서 한국 대표 홍보관 운영

전라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매년 200만 인파가 몰리는 유럽 최대 축제인 2023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에 참가해 유럽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27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선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됐고, 전남도가 우리나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축제 첫날인 2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섬, 해양, 생태 등 청정 관광자원, 한국의 부엌 전남을 홍보했다.

이어진 박물관강변축제 메인강변 주무대 개막식에서는 '전남관광 유럽지역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 위촉식'이 열렸다.

위촉장을 받은 독일, 영국, 루마니아 등 유럽 8개국 20명의 서포터즈는 전남관광을 누리소통망에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를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고 누리소통망 활용에 익숙한 해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35개국 170여 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서포터즈는 해외 전남관광설명회 등 행사에 참여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과 국가별 커뮤니티를 통해 전남 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에 나선다.

최근 누리소통망으로 여행 정보를 얻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서포터즈 운영으로 전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발걸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로스마르크트 광장 일대에서 전남 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500여 명의 엠지(MZ)세대 및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압화 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풍부한 관광자원 위에 다채로운 축제와 매력만점 콘텐츠를 엮어, 올해 전남 방문의 해

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접 와서 아름다운 섬, 청정해역,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케이(K)-푸드와 케이(K)-컬처의

본고장 전남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개장 149일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600만 돌파

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서 태어난 다람쥐원숭이 '몽순' 축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49일째,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28만 순천시 인구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박람회장을 찾은 셈이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7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600만 관람객 맞이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관규 이사장과 정병희 순천시시장, 그리고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함께 자리했다.

조직위는 먼저 13시 32분 국가정원 동문으로 입장한 600만 번째 관람객 축하행사를 진행, 행운의 주인공인 '폴 안도노브(Paul Andonov)'를 맞이했다. 호수에서 온 폴 안도노브는 멜버른 대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기업분석가로, 코로나로 인해 고향(순천 해룡면)에 머물고 있던 아내를 데리고 호주로 귀국하기 전 박람회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시장은 이들에게 순천사랑상품권 100만 원과 실랑계 숙박권을 증정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해당 순천사랑상품권은 박람회 운영대행사가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며 후원해왔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8월이 지나기 전에 600만 관람객을 맞이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실은 긴장마와 폭염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9명 중 1명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다고 하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굉장히 기쁘다"라며 "9월, 10월에는 억 만송이 국화와 함께 정원의 정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정원과 함께 가을꽃이 만연한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폴 안도노브와 아내 양선심 씨는 "사실 이전부터 가드스테이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약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6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되면서 가드스테이 숙박권을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가장 큰 선물과도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지난 7일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출생한 아기 다람쥐원숭이 '몽순'을 소개했다. '몽순'은 원숭이를 뜻하는 영어 Monkey의 '몽'과 순천의 '순'자를 조합한 이름으로, 전국민 대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내부 심사 와 박람회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노관규 이사장은 '몽순'을 대신한 원숭이 캐릭터에 이름표를 직접 걸어주며, 어미 원숭이의 산후조리와 몽순이의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선물했다. 노관규 이사장은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염원하는 듯 박람회 기간 중에 몽순이가 태어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이 멋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조직위는 축하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어 박람회 입장권을 비롯해 기념품 및 파라운지 농산물 선물꾸러미 세트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500만 관람객 돌파(6. 23.) 이후 약 2달여 만에 600만 관람객을 넘어섬에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위는 남은 기간, 황금빛 갈대의 향연 '순천만습지', 억만송이 국화로 꽃 피운 국가정원, 가을정취를 자아낼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완성도 높은 가을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식용곤충 산업에 엔진을 더하다!

'갈색거저리 유충 수분 자동 공급장치 실증연구사업 중간보고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식용곤충 산업 진흥에 발판이 될 갈색거저리 유충 수분 자동 공급장치 실증연구 중간보고회를 사매면 일원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갈색거저리 유충사육 농가에서는 유충사육에 필요한 수분공급을 주로 무농약 채소로 공급해 오며 따라 무농약 채소 부족 및 계절에 따른 수급 불안과 경영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식용곤충 사육농장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 수분공급 장치는 기계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사육상자의 수분 공급용 입구에 노즐을 삽입한 후,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수동분무시 수분공급에 소요하는 시간(레일당

(400상자) 4~5시간) 대비 인력 소모량이 적고 상자당 수분 공급량 또한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 실증연구 방식이 정착되고 데이터가 축적될 시 노동력 대비 1인 사육 면적과 개체 수가 증가해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딸기 꽃눈을 찾아라! 함평군, 꽃눈 분화 검사 기술지원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현미경 검사 통해 최적 딸기 정식 시기 안내



전남 함평군이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 분화 현미경 검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딸기 꽃눈 분화 여부를 현미경으로 검사해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와 양분 투입 시기를 농가에 알려준다.

꽃눈 분화는 딸기가 생육에 필요한 영양·육묘 기간 등의 조건들이 모두 다 완성돼 꽃눈을 형성하는 것이다. 딸기 꽃눈은 육안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60배 이상의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꽃눈 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딸기 모종을 너무 빨리 정식하면 딸기 수확이 1~2달가량 늦어져 딸기 재배에 어려

움을 겪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은 육묘장 중앙 부위에 잎색이 진한 묘 3~5개를 뽑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군에서 주로 재배하는 설향 딸기 품종은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정식을 해야 11월부터 고품질 딸기 생산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꽃눈 분화를 확인하고 적기 정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남 완도해역, 3000톤급 벌크선 기관고장 비상 투묘 예인·구조 중... 인명피해 없어

바상 투묘 중 연안으로 밀린 벌크선, 가용세력 동원 총력 기울여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 8월 06시 37분 무렵 급일을 섬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A호(3000톤급, 벌크선, 11명)가 기관고장으로 투묘 중 연안으로 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세력을 동원 예인·구조 중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박 A호는 부산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해 비상투묘 완료 후 조류로 인해 연안으로 근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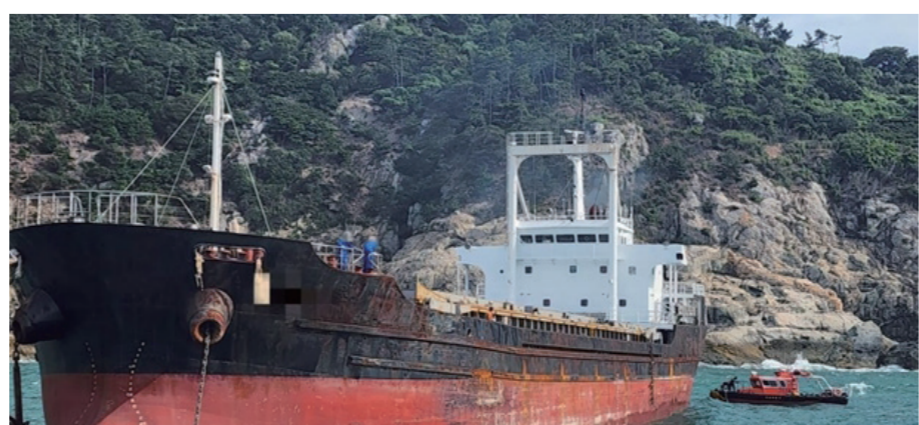
이에 완도해경은 신고접수 경비함정, 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급파하고 선박 예

인을 위해 예인선 섭외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현장 세력을 총동원 인근서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대응 중에 있다.

특히, 현장에 도착한 완도구조대는 화물선에 승선하여 승선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연료밸브 및 에어밸브를 차단하는 등 현장 초동 대응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구조세력들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인선이 도착하면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나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자치법규 26건 폐지

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 차년도 예산편성 제외

전라남도 나주시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을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첫 시행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 예산을 적시·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선 8기 성과행정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나주시는 전남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시책 일몰 대상 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 이미 달성',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행정력·예산 저하 초래', '대다수 시민의 호응 받지 못 불필요' 등의 사업으로 발굴과 검토, 심의 과정을 거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일반업무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수조사를 하고 일몰이 필요한 36건의 사업,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나주시는 심의회를 통해 총 36건 중 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을 각

각 일몰 대상 시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일몰된 주요 사업은 '대학진학촉진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나주시민오키스트라 운영', '남평 향교 순례길 조성' 사업 등 총 14건이다.

일몰 사업은 관련 조례 폐지·일부 개정되며 차년도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부시장은 "시책 일몰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 재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시의성있게 대응해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과 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강영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나주시의회 황광민·박소준 의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심의를 통해 이종권 공산면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영만/기자

목포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실의에 빠진 수산인 격려

목포시·목포수협·목포지방해수청 함께 힘을 모아

목포시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합동으로 목포수협 목항할어위판장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실의에 빠진 수산인을 격려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수산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와 목포수협, 목포지방해수청이 25일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 것이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국립품질관리원 목포지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목포수협과 연계해 위판장 선제적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검사 결

과 안전한 수산물만 위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염수가 방류되어 안타깝다.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싱싱한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목포시는 신안군, 진도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를 전개해 유관기관 간 협조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오메가3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오메가3 쌀의 소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전남 구례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사조대림, 구례농협,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과 오메가3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주)사조대림 김택준 본부장, 구례농협 노성원 조합장,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 고상준 이사가 참석했다.

구례군과 세 기관은 오메가3 쌀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 지원과 유통 활성화, 새로운 제품개발 및 판매, 원료매입과 가공처리, 쌀 생산단지 조성과 쌀의 원료생산, 오메

가 3 쌀 납품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구례군 벼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계획 면적은 175ha이며, 이 중 25%인 44ha를 오메가3 쌀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생산된 오메가3 쌀은 아이쿱생협에 매년 150톤이 납품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특허를 받기도 했다.

김순호 군수는 “아이쿱생협과 (주)사조대림에 오메가3이 쌀이 지속적으로 납품되어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신안군생활개선회, 탄소중립 업사이클링 운동 추진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 전개

신안군은 지난 22일 한국생활개선 신안군연합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과 생활용품 업사이클링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은 김효정 신안군생활개선회장이 강사로 나서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전달하고 양말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버려지는 자원인 양말목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인 방석과 냄비 받침을 만드는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더 해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생활개선회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식물 심기와 EM 흙공 던지기, 업사이클링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중요성을 지역에 전파하는 다양한 저탄소 활동을 전 읍면 7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효정 생활개선회장은 “신안군은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생활개선회가 슬로시티 운동에 앞장서서 전 군민이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몽골에서 전방위 홍보전...실질 교류 초석 다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전북 알러



전북도는 기획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열고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며 본격적인 실질적 교류 협력의 초석을 쌓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주간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

최했다.

전북대표단은 첫날인 25일 한국주간 행사 개막식에 참석, 도립국악원과 국립남민속국악단 방수미 명창의 판소리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돌고르수렌 소비야바자르 울란바토르 시장을 비롯해 몽골 중앙부처 관계자, 주몽골주재 각 국 외교관

등 약 1만여명이 참석해 한국문화주간을 만끽했다.

도는 25일부터 3일동안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서예관), 전북홍보관, 도내 대학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지우산, 한지등, 부채 등 한지 공예작품부터 손수건, 지갑, 한복 등 섬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작품을 전시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지공예 체험도 진행한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 도내 업체 7개사가 참가 하는 가공식품을 전시, 시식한다. 개막식에서는 비빔밥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전북산 전통고추장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글관에서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 서예관으로 꾸민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퍼포먼스, 탁본체험 등으로 구성된 몽골 서예와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한다. * 2023서예비엔날레 몽골 작가 특별 참가

전북홍보관과 함께 도내 대학 홍보관도 함께 운영,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6일에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어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1:1 상담도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한식관 운영과 연계해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 시식행사를 진행,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이번 행사가 전라북도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또 “특히 이차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우리도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간의 미래 가치산업에 대한 경제협력 추진도 필요하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27일 재외동포 간담회와 몽골 사막화 방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기관과의 간담 후 귀국한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무주택 청년 대상...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간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상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특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속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영진/기자



구북구 화순군수, 간부 공무원들 역량 강화와 현장 행정 주문

8월부터 확대간부회의에서 '5분 발표(스피치)' 시행

화순군 간부 공무원들이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5분 발표(스피치)'를 하며 눈길을 끌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난 1년간 민선 8기 청사진을 위한 밑바탕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첫 번째 변화로, 민선 8기 1년간 군정 기반이 잡힌 만큼 화순 곳곳을 누비며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두 번째 변화로, 그동안 매월 정례회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분 발표(스피치)'를 간부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간부 공무원들이 관리

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명씩 발표를 진행한다.

자기 계획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정책을 직원 교육 실시자이며 주관자 인 간부 공무원들까지 확대해 선진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군 내실을 다지는 데 일조하고, 군정 운영 효율성 제고와 조직사회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형채 관장·

체육실장과 이영문 한천면장이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추진 배경 공유'와 '민선 8기 군정 성과 및 노인복지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첫 시작을 알렸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군정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5분 발표(스피치)가 제격인 것 같다”라며 “술선수범하는 간부 공무원의 모습이 우리 화순군을 선진 군정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직원들이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정책방향 공유

추진위원 등 위촉 및 회의 가져

강진군이 지난 22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한 뒤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첫 발을 내딛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및 이행하고 아동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

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갈 방향을 설정했다.

강진군은 서순철 부군수(위원장) 및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유경숙 부의장 ▲강진경찰서 김영진 경위 ▲강진교육지원청 김순오 장학사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정 관장 ▲강진군청소년수련관 김지현 관장 ▲강진군가족센터 조성욱 센터장 ▲강진

군육아지원센터 이수민 센터장 ▲강진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민정 회장 ▲강진군어린이집연합회 이영미 회장 ▲강진학부모연합회 김순아 회장 ▲강진군청소년지도위원회 정양수 회장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재영 회장이다.

앞으로 추진위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교육과 홍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이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지방소멸시대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체감 효과는 미비하다”며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의 정책적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되고 시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동해안 지자체 최초 환경정화선 경북0726호 취항

170톤급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경북0726호 취항식 개최

경북도는 25일 해양수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0톤급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경북0726호'의 취항식을 울릉 현포항에서 개최했다.

'경북0726호'는 마땅한 처리시설이 없어 방치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는 국비를 확보해 지난 2021년 건조에 착수하고 2023년 2월 준공했다.

전국 6개 시도에서 7척의 선박(충남 1, 인천 1, 전북 1, 전남 1, 경남 2, 경북 1)이 건조됐고, 경북0726호는 환동해권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친환경 디젤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동해안 지자체 중 최초의 환경정화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기관 1,800마력, 최고속도 13노트(시속 24km), 항속거리 600km, 전장 39미터, 전폭 9미터로 도내 관광선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경북도에서는 경북 0726호를 해양쓰레기 수거·운반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처리 지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박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북0726호의 선명은 독도의 해돋이 시간에서 착안해 지어졌는데 이름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해돋이가 시작되는 곳이며 1월 1일 공식 일출 시각이 오전 7시 26분으로 일출과 함께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동해 바다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도 최초의 해양쓰레기 전문 수거 운반선인 '경북 0726호'의 취항을 시작으로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환동해 해양쓰레기의 처리와 해양생태계 복원 등 해양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 동해를 만들어 가는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대입 고른기회 전형 전용 상담' 운영

9월 5일까지 고른기회 전형 대상 고3 학생들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는 사단법인 밥일품과 함께 2023 대구광역시 교육사다리 복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3 고른기회 전형 전용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고3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 고른 기회 전형 대상 학생들에게 진학 전문 교사와의 '1대1' 진학 상담을 제공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한다.

'고른기회 전형'이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형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 정원이 적어 합격선 예측이 어렵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좋은 취직에도 활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진로 진학 전문 교사들로 구성된 대구사다리교사단과 함께 고른기회 전형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고른기회 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단이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수시 지원 전략 상담을 제

공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도규태 대구사다리교사단 회장(경북대사대부교사)은 "신청 학생들에게 성적과 학생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른기회 전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습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교사들의 상담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른기회 전형을 대상으로 '1대1'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대구광역시가 최초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밥일품 누리집의 팝업창을 통해 네이버폼 양식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고른기회 전형 대상 증빙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 상담 접수는 오는 9월 5일까지이며 예정인원은 50명이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장은 "앞으로도 대구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층에게 교육사다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국제전기전자학회 로봇자동화위원회(IEEE RO-MAN) 2023 국제학술대회' 개최

8.28.~8.31.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려...

로봇 도시 부산의 세계적 도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는 오늘(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국제전기전자학회 로봇자동화위원회(IEEE RO-MAN) 2023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주, 2013년 경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한국로봇학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로봇-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가 모이는 소통의 장으로, 수준 높은 논문 발표와 학술적 교류(네트워킹)를 통해 국내 로봇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학술회의 주제는,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을 위한 새로운 사고 설계(Design a New Bridge for H-R-I)'다.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HRI)은 컴퓨터 과학, 인류학, 심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최신 첨단 로봇 융합 기술이자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1인 1로봇 시대'의 핵심기술이다. 대회에는 30개국의 로봇자동화 분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하며, 기조 강연과 논문 발표, 전시부스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부스에서는 부산시 소재 로봇 관련 산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제품이 세계무대에 소개돼 부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덕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학술회의가 부산의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조성을 가속화하고 로봇 선도 도시로서의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학술 수준의 전반적 향상 및 부산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청송 현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안전, 이웃사랑 실천

청송군은 현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근 특화사업으로 특별식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청송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협의체 위원(16명) 및 현서면 안녕살피미(30명)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자동제세동기 활용 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전복죽을 만들고, 안녕살피미들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박명월(민간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 준 현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청송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 별빛 반딧불이축제 개최

영양군은 8월 26일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서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은하수 탐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방문객들은 반딧불이 탐방로를 따라 반딧불이와 별들 사이에서 마치 은하수를 걷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

밤하늘보호공원 내 천문대 전정에서는 저글링, 마임, 버블쇼 공연 등 볼거리, 밤하늘 OX퀴즈, 원예소품을 직접 만드는 플랜테리어 체험, 재즈 콘서트, 바비큐장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공의 빛을 벗어나 별과 반딧불이가 선사하는 자연의 빛속에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가

저가길 바란다."라며 "우리 군에서도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서 펼쳐지는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는 8월 26일 토요일, 단 하루만 개최된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억지춘양시장 주말장터로 놀러오세요~

봉화군이 지난 26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거움을 주는 흥겨운 문화행사가 가득한 억지춘양시장 주말장터를 첫 개장했다.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억지춘양시장주말장터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매주 토요일 열린다. 주요행사로 주말장터, 거리이벤트, 문화공연, 먹거리 장터 등이 있다. 주말장터 운영은 각 점포별 주요상품 전시판매와 할인 매대도 운영되며 테마별 거리 이벤트로 할로윈, 풍선 터트리기, 대형 다트 게임도 진행된다.

또한, 문화공연 행사로는 추억의 팝, 보컬 공연, 마술 등의 버스킹 공연과 지역 내 공연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상인문화공연단의 공연이 이뤄진다.

더불어 주말 장터를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국밥, 꼬치, 전, 커피 등의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분천산타마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인 춘양투어 사업과 주말장터를 연계해 관광객들이 장보기 체험 등 시장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주말장터 운영은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재미와 추억을 많이 담아 가길 바라며,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어 시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여름철 계곡 및 해수욕장 등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물놀이 관리지역, 해수욕장, 수상레저시설 등 관리 실태 현장점검



경북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 기간 동안 도내 물놀이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하천과 계곡 등 위험지역에서 불어난 강우량으로 인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과 바닷가 등 해수욕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물놀이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안전감찰 대상은 물놀이 관리지역 70개소와 동해안 해수욕장 13개소, 수상레저시설 5개소, 물놀이 유원시설 1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하고 43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주요 내용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위험구역 부표 미설치, 무허가 불법 시설물 방치,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휴일

비상근무 미운영, 구명환 등 안전시설장비 관리 소홀을 확인했다.

해수욕장에서는 감시탑 미설치 및 근무자 미 상주, 물놀이 안전지킴이 고정배치 미이행, 위험구역 부표 미설치, 해수욕장 편의시설 미정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또 안전감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3일 시군 해당부서로 감찰결과를 전파해 유사 사례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정·보완되도록 했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계절별로 중요한 안전관리에 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올해 2번째 추경예산 편성...620억원 규모

올해 총 예산 2조 630억원으로 늘어... 민생 안정·재난 극복에 중점 둔 편성



경주시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0억원(3.1%) 늘어난 2조 630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34억원 증가한 1조 7624억원, 특별회계는 86억원 늘어난 300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태풍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중점을 뒀다.

주요 재원은 추가 확보된 지방소득세 107억원, 세외수입 131억원, 국도비보조금 60억원, 보전수입 201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기업실적 부진 등 세입 전망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0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경주시는 이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성이 높은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를 복

구를 위해 △태풍 재해복구 33억원 △신당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20억원 △중대결함 교량 보수보강 6억원 △하천 보수 및 정비 17억원 △수리시설 개선사업 17억원을 투입했다.

시민 편의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 12억원 △가족분노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26억원 △한시적 축산농가 경영안정(사료비) 지원 11억 △황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25억원 △중부항호 통합청사 건립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10억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7억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4억원 △신라 금속공예지구 조성 19억원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지원 5억원 등을 투입했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주시가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주시의회 상임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맞춰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재해 복구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비지정 성보문화유산, 경상북도 문화재로 3건 지정 고시

19세기 경상도 지역의 산신도 도상과 신앙 알 수 있는 중요 자료



경상북도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재 3건을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총 3건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안동 석탑사 산신도'이다. 지난 수개월 간 현지 유물 실사에 이어 인문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이어왔다.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등 3건의 성보문화유산은 불교회화의 화면 구성, 표현기법 등에서 예술미가 돋보이며, 화면 하단에 작성된 화기(畫記)를 통하여 그

림이 제작된 시기와 더불어 당시 불화를 조성하던 화사 집단 활동 사항 연구에 사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安東 大圓寺 所藏 現王圖)는 183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경상도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 간 불화의 도상 공유와 전파를 확인하는 데 불교미술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사불산화파의 형식과 차별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상적 희소성 또한 높다.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수려한 선묘, 섬세하고 자세한 세부 묘사, 백색 안료와 금박을 사용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고분법, 금분과 여러 흔적을 사용한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손상이 있지만 작품의 불교미술사적 가치, 표현기법의 우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됐다.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安東 石塔寺 阿彌陀如來會圖)는 19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연이라는 화승의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채색은 적색과 청색, 녹색 위주에 구름문 표현의 경우 고흘색과 갈색, 녹색순으로 면을 메꾸듯 구사하면서 가장자리는 백색 바림으로 강조하여 변화를 주었다. 특히 주불과 보살들의 녹색 설채법은 우주음을 물결기법처럼 선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18세기 신경계의 사불산화파 불화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19세기 사불산화파 중 수화승으로 활동한 수연의 새로운 작품의 발굴이라는 의미 외에도, 19세기 아미타불도 가운데 가장 빠른 제작연대의 작품으로 제작자

가 명확한 불화이기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안동 석탑사 산신도(安東 石塔寺 山神圖)는 그림 뒷면에 목서가 있어 1863년(同治 2)이라는 제작연대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화면 구도나 먹 위주의 담채풍 설채법, 무심하고 투박한 듯한 필치, 호랑이를 제어하며 틀어쥐고 뱀나 가슴이 드러나는 산신의 복식 등이 독특하다. 이 작품은 호랑이에 올라탄 기호산신도(騎虎山神圖)라는 드문 형식의 그림이라는 점, 담묵의 소박하면서도 호방한 필치의 완숙미로 화승의 역량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의 산신도 도상과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자료 지정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교문화가 꽃피우고 불교문화가 나비와 같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곳이다. 과거 안동인들의 삶의 안식처이자 영원을 빌던 불교는 마음을 담은 공양과 시주로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조성했고 현재는 신앙의 대상을 넘어 미술사·종교신앙·종교 민속·서지학 등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다. 안동시는 비지정 성보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 발굴을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재의 다양성 확보에 힘쓰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수해 위험 요소 제거로 시민 생명·재산 보호 '총력'

161개소 하천 긴급복구 완료...항구복구 위한 실시설계 선 발주

영주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진 긴급 복구작업을 마치고 추가 수해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제방 유실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소하천·세천 161개소에 대한 긴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 공사조기착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각 현장별 현황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신속한 수해복구로 내년 우기 전까지 추가 수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복구에 479억 원이 소요된다. 영주시는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체 복구액의 80%인 38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항구원 하천과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9월부터는 각 현장별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며 "하천분야 호우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농산물 국제분석능력평가 2년 연속 우수

의성군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주관하는 '국제분석능력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2021년부터 매년 참가하여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FAPAS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FAPAS는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으로 평가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 국제적인 분석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분석능력평가(FAPAS)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매년 참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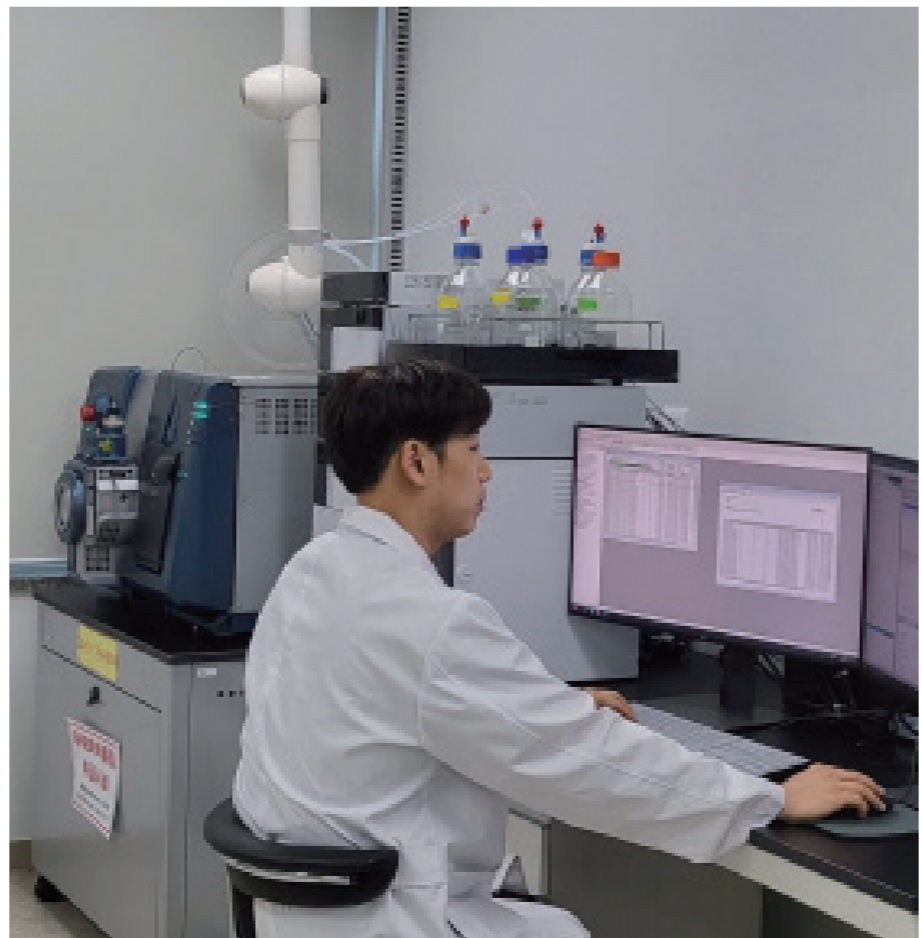
정부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른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로컬푸드 입출 농산물, 친환경 GAP 인증, 생산 및 출하 농산물 사전모니터링 등 잔류농약 분

석으로 의성푸드플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상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검사항목은 PLS제도 기준에 맞춰 463종을 분석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잔류농약 분석의 철저한 정도관리와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성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추석 햅쌀용 '해담쌀' 첫 수확 기쁨!

호우·태풍 등 이상기후 견딘 최고품질 조생종 벼 베기 나서

예천군에서는 26일 개포면 경진들녘에서 올해 첫 벼 베기가 실시됐다.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조생종인 해담쌀로 지난 4월 21일 모내기 이후 127일 만에 수확하는 것이다.

해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최고품질 조생종 벼 품종으로 미질이 좋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으로 작목반에 소속된 20농가가 13ha에서 약 107톤을 생산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당일 예천군농협쌀조공법인에서 매입해 가공을 거쳐 추석맞이 햅쌀로 전량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는 첫 수확 작업에 함께하며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학동 군수는 "올여름 극심한 호우 피해, 태풍, 폭염 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 더욱 값진 우리 쌀"이라며 "소비자들의 밥상에 맛있는 예천쌀이 오를 수 있도록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더욱 힘

쓰고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방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야간보행도 안전하게... 경북도가 앞장선다!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로 야간 보행 안전 도모

경북도는 포항 등 11개 시군 총 199개 소의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의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2020년 128개소, 2021년 107개소, 2022년 206개소에 이어 추가적인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가 설치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보행환경 제공과 위치 찾기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는 도로명판이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태양광 패널과 LED를 부착해 야간에 밝게 점등되어 시인성 확보는 물론 가로등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도로명판을 제거하지 않고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낮 시간대에 태양 에너지를 충전한 후 야간에 점등하므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로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도로명주소 홍보와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 대책 마련 나서

감리자·시공사와 간담회 개최, 공사 현황 공유

구미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공사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례 및 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전수조사, 주요공정 촬영 및 기록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구미시 무량판 구조 현황 및 대책을 설명하고 민간건설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감리자, 시공사에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내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여러 공사 현장의 현황을 공유하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시에는 최근 준공 예정인 산동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1,555세대), 원평 아이파크더샵(1,610세대) 등 총 2개 단지 3,16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원호 푸르지오 등 다수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율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국 도시건설국장은 "공동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공 품질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202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

9.1.~9.2.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국제 전시행사 개최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부산시와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부산권의료산업 협의회가 주관하는 의료·관광 국제전시행사다.

행사는 ▲전시행사 ▲국제학술행사 및 세미나 ▲명의 초청 건강강좌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주요 행사들은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행사에서는 의료관광, 의료체험관, 의료산업관, 관광산업관 등 4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18개국 120개 업체에서 200여 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국기와 국화로 디자인한 티셔츠를 전시하는 등 전시장

을 찾은 해외 바이어와 관람객에게 부산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전시행사를 관람하는 시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선보이는 난청보청기 체험, 갑상선 검사, 체외충격파 체험 등 다양한 의료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국제학술행사 및 세미나에서는 항노화 의료관광 국제 학술토론회 및 케이(K)-뷰티를 활용한 코스메티 뷰티 세미나가 개최된다. 황방훈, 함경식 메이크업 아티스트 초청 메이크업쇼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명의 초청 건강강좌에서는 부산고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관절 자가진단 및 예방, 재활의 효과적 자가운동 방법을 주제로 척추·무릎 운동 교실을 진행한다.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사전 상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지역 의료기관이 만난다.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 18개국 82명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돼 실질적인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어린이 심폐소생술, 케이팝(K-POP) 필라테스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푸짐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행사 개막식은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국내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소, 사물놀이 개막공연과 의료산업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퍼포먼스도 만나볼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소풍,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일상 회복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부산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영덕 청소년 '예술'로 무더위를 날리다

여름방학 특집 감상형 문화예술교육 성황리에 종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감상형) 총 3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지난 8월 17일 전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여름방학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었고 공연 관람까지 이어져서 문화예술교육이 체험으로 각인된 것 같아 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을 진행한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도 "학생시절 체험한 문화예술 장르는 성인이 돼서도 친근하게 찾고 즐기게 된다"며 "영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골고루 경험하게 하고 싶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여한 학생들 모두 즐거워했고 앞으로도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레, 고학년은 국악, 중학생은 재즈 수업에 참여했는데 이론 뿐 아니라 직접 악기도 만져보며 체험하고, 연주하면서 예술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또 교육 후에는 참여자 및 그 가족, 지역민을 무료로 초대하여 교육 관련 공연을 관람하면서 수업 내용

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한 청소년 뿐 아니라 지켜본 부모들의 반응도 남달랐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여름방학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었고 공연 관람까지 이어져서 문화예술교육이 체험으로 각인된 것 같아 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을 진행한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도 "학생시절 체험한 문화예술 장르는 성인이 돼서도 친근하게 찾고 즐기게 된다"며 "영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골고루 경험하게 하고 싶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여한 학생들 모두 즐거워했고 앞으로도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라고 전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감상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엔 더 업그레이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달서구, 세계를 JOB다! Dalseo 글로벌 잡페어 참가자 모집

달서구, 해외기업 채용면접에서 취업성공까지! Dalseo 글로벌 잡페어 개최

대구 달서구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Dalseo 글로벌 잡페어는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해 특강에서 면접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 참가자는 9월 13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용면접을 신청할 경우 9월 6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업의 1차 서류전형을 통해 9월 11일까지 채용면접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청년들이 글로벌기업 취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실제 채용면접을 실시해 지혜의 우수한 인재 선발, 채용할 예정이며, 그밖에 해외취업 전문가 특강과 면접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기업 채용면접부스에서는 일본기업 토요코인, (주)아이제이글로벌, 일본키스코(주)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구직자와 채용인터뷰 및 인사상담을 실시하며, 해외취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본취업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해외취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채용면접 신청대상자와 특강 참여자를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페이스 메이킹 등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해외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2023년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를 통하여 실제적인 해외기업 채용면접을 경험하고, 채용선발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청년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2023 하반기 Dalseo 글로벌 잡페어
2023. 9. 15. (금) 16:00~19:00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 채용면접**
 - 일본기업 1:1 채용면접
 - 토요코인, 일본키스코(주), (주)아이제이글로벌
- 해외취업 특강**
 - 일본 취업 전문가 특강
 - 강사: 이명영 교수 (한남대학교 일어교육과)
- 부대행사**
 - 면접이미지 메이킹
 - 퍼스널 컬러 진단

기업 채용정보와 프로그램 상세일정은 달서구 홈페이지 참고

참가대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기간: 8. 17.(목)~9. 13.(수) 채용면접 신청자 이력서 제출기간: 9. 6. (수) 까지 > 면접 대상자 선발 통보: 9. 11. (금) 까지
참가방법: 달서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문의: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053) 667-2665



도봉구,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중점 확인



도봉구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에 나섰다. 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구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점검해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도봉구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이며, 점검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잔혹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요즘,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바로 아동·청소년 기관들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소방, ESS 및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기법 특별교육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도민 안전 책임진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 도민 안전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5일, 의성소방서에서 도내 21개 소방서 화재조사관과 현장 대응요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분야 전문가인 국립소방연구원 박사를 초빙해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화재조사 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도내 총 6건의 ESS 화재로 약 28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8건으로 약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SS와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1초 2초가 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일반 화재에 비해 10배 이상의 소방용수가 필요하고, 화재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차 피해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어 화재 대응 및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친환경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은평구, 재난 대응 향상 위한 안전한국훈련 참여

이번 2회차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실시

서울 은평구가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시행해 매년 실시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해 범국가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집중 훈련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훈련 시기를 2주씩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은평구는 3회차 훈련에 참여하며 10월 25일 화재와 산불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인천 중구, 영종지역 물 재이용시설 27곳 지도·점검 완료

운영관리 업무지침 준수 및 중수도 수질 적합 여부 확인

인천시 중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내 물 재이용시설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물 재이용시설’은 가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 자원 이용을 위해 빗물 혹은 이미 한번 사용한 수도물을 모아 조

경·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종 지역 내 중수도 시설 4개소와 빗물이용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중수도 시료 채취 및 수질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중수도 시설 4개소에 대해 인천광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호함을 확인했다. 또, 빗물이용시설 중 실적이 저조한 곳엔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해 물 재이용률 제고를 도모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 관내 물 재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해양수산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박성훈 해수부 차관, 8. 26.(토)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점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6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먼저 박 차관은 도매시장 내 가락물에서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수산물도 직접 구매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 차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을 총 7만 9천 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 이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했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박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점검하고 모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성지아/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강원도, 추석연휴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등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여객운수시설 등) 16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 실시여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등 재난 대응요령에 대한 지도점검과 테러 취약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대테러 수준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관협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8월 2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 22일까지 시설물의 분야별(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양원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추석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귀성객 등 많은 인원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위험요인 사전 발견과 안전조치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과기부 1차관에게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건의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받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 뜨기로 협의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산.학.연.병 접적화는 물론, 대학, 병원, 연구.창업시설, 상업.편의시설 등을 혼합배치해 한국형 쉐달스퀘어를 조성하는 것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MGH(매사추세츠 종합병원), NYU(뉴욕대), MIT, 하버드대, 모더나 등과의 글로벌 공동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할 혁신 프로젝트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받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자”고 강조했다.

이어, “도 경제부지사에게 직접 1차관을 방문하여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을 설명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경 제1차관은 “올해 충북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은

고정화/기자



태백시, 세계 바둑의 성지화 사업 추진단 협의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24일 '태백산, 세계 바둑의 성지화 사업 추진단'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백산배시프로, 아마 바둑대회 개최, 지역 바둑 유소년클럽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전국 바둑 클럽 대항전 유치, 세계바둑엑스포 추진 등 태백산을 세계 바둑의 천원(天元), 태백산 천체단을 중심으로 바둑 관련 문화 관광사업을 위한 여러 세부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시는 지난 7월 태백시-한국기원-강원일보-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간 업무협약식에 이어, 추진단을 구성하여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태백산 바둑 성지화 관련 사업 추진 및 분야별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바둑 성지화 사업에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바둑을 통한 지역발전 및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기원 태백본원 설립, 바둑을 통한 국제교류를 위한 중국 취저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태

유상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문화생활 향유에 장애가 불편함 되지 않는 도시 조성할 것"

'아트벨리 아산 제1회 장애인 한바탕 물놀이 축제' 성료

'제1회 아트벨리 아산 장애인 한바탕 물놀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산시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에서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이창호 장애인복지관장, 이광훈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장, 시·도의원 등 30여 명의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주요원을 추가 배치했으며, 경찰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도 참여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문화예술 공연인 '무장애 공감 콘서트', 마술 공연, 보물찾기, 타투·물총놀이·에어바운스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진행돼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기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물놀이 행사는 매년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려왔다. 하지만 아산시는 올해부터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으로 행사 장소를 옮기고 '한바탕 물놀이 축제'로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아산시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후원회 등 주최 측은 이날 물놀이 축제에 참석한 참가자 수가 약 400명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박경귀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 모두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과 각종 물놀이, 액티비티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전에 비해 더 넓은 공간에서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더 마음껏, 더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근에 조성 중인 신정호 정원을 비롯해 앞으로 아산시 명소 곳곳은 '무장애 환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장애인도 마음껏 공원을 관람하고 정원을 즐기고, 온천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수 기계로 물놀이의 시작을 알린 박 시장은 물총 싸움에 참여하는 등 참가자들과 한바탕 물놀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이어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신정호 물놀이장에 배치되어 있던 안전요원과 간호사 외에 안전요원과 응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을 잡은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펼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공존의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아산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김원호/기자



천안형 청년도전 '문화삼거리', 청심약방 열고 희망 전달

"청년의 마음에 희망을 심고, 꿈을 처방합니다"

"청년약방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됐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반려식물 4종을 처방했다.

지난 26일 천안신부 문화공원에서 열린 '청심약방'에 참여한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다.

문화삼거리는 청년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천안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문화삼거리'가 청년의 마음에 희망을 심고, 꿈을 처방하는 '청심약방'의 문을 열어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A씨는 "청년약방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소통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안시 공모사업인 '2023년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문화삼거리는 영상 연출자, 시각디자인, 캘리그라피 작가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청심약방 관계자는 "청심약방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찾고 추후 다른 스트레스를 마주해도 한층 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하고자 청심약방을 기획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심약방은 취업·외모패션·주거·연애 등 4가지 유형의 청년 스트레스에 대

김원호/기자



원주시, 시민안전 자원봉사 네트워크 추가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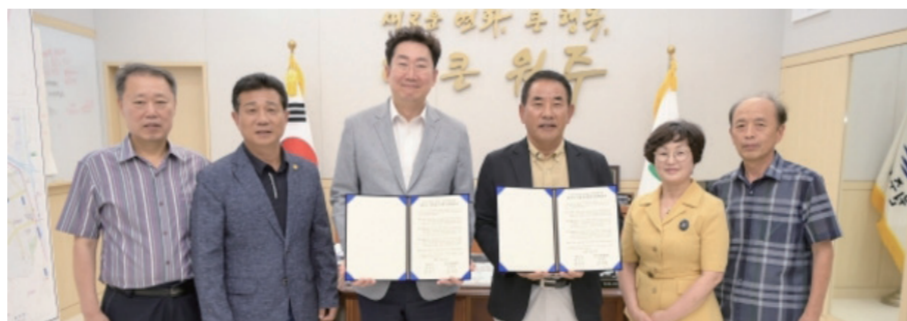
원주시이동장협의회와 원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참

원주시는 지난 25일, 원주시이동장협의회, 원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민안전 자원봉사 네트워크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 및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봉사 정신이 투철한 민간 봉사단체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단체들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 활동을 펼쳐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기존 17개 네트워크 협약 단체와 함께 재난 및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내포 자동크린넷' 9월부터 정상 운영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새 이름으로 운영 본격화

충남도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다음달부터 새로운 이름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중남개발공사가 시범 운영 중인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권을 인수해 9월 1일자로 본격 운영에 나선다.

발공사가 시범 운영 중이다.

회 및 중심 상가 건물관리소 등에 협조를 구하는 등 시설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문전 수거 종료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내 일반 생활 쓰레기를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수거·처리하는 시설이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명칭을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변경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이용 안내 등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일반 생활 쓰레기 문전 수거를 종료할 계획이다.

충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내포 자동크린넷 정상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혁신도시조합과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설인 만큼 올바른 시설 이용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문전 수거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정근/기자

집하장 2개소와 지하관로 40km를 통해 하루 66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2018년 완공 이후 현재 중남개

도와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자동크린넷 운영에 앞서 내포신도시 내 18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이주자택지 상인연합회, 내포상인연합



충남도,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도, 제조 영위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원 지원...다음달 8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이다.

단,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하연되고, 융자추천서를 받

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권경선 도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원자력연구원, 해수 중 스트론튬-90, 기존 3주에서 하루면 확인 (해양분야 국제학술지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 김현철 박사팀이 개발한 해수 중 스트론튬-90 분석기술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도화하고, 관련 분석장비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해양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Marine Pollution Bulletin' 2023년 8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법의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방사능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기술세미나를 진행했으며, 그 성과로 올해 9월경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시작으로 국내 방사능분석기관에서 실제 시료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에는 스트론튬-90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등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물질이 많고, 그 중에서도 극미량인 스트론튬-90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高) 속원된 분석자에 의존적인 기존의 분석법은 분석에만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스트론튬-90은 시간이 지나면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이트륨-90을 만들어 내는데, 14일이 지나면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의 방사능은 같아진다. 연구팀은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이트륨-90을 흡착하는 수지(resin)와 자체 개발한 자동핵종분리장치(KXT-H, Kaeri eXtraction Technology-Hybrid)를 이용해 이트륨-90을 분석하여 스트론튬-90의 방사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분석법을 2021년에 개발했으며, 이는 기존 분석법의 분석 소요시간을 3주에서 2일 즉, 1/10로 단축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2021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자체 개발한 대용량 해수 전처리 장비의 시료 처리능력을 2배 향상시켜 전처리 소요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총 분석시간이 1일이면 가능하게 됐고, 분석대상인 이트륨-90의 회수율도 60-70%에서 90%수준까지 고도화했다.

해수 시료량이 증가할수록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성과는 신속성, 정확도, 정밀도 측면에서 기존 분석법보다 향상된 것이다. 연구팀은 고도화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제주도 동남권 해역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스트론튬-90의 양이 평년과 유사한 0.5~1.23 mBq/L로 나타났고, 수심이 나 계절에 따른 농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한 검사법은 해양 방사능 감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박사는 "해수에서 스트론튬-90을 분리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그 딸핵종(daughter nuclide)인 이트륨-90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양방사능 분석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상용화된 장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기술이전 받은 산업체와 협의 중이다"면서, "국가적으로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에 따른 분석물량이 급증하는 이때,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과 분석 장비를 국내 방사능 분석기관이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방사능 분석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이하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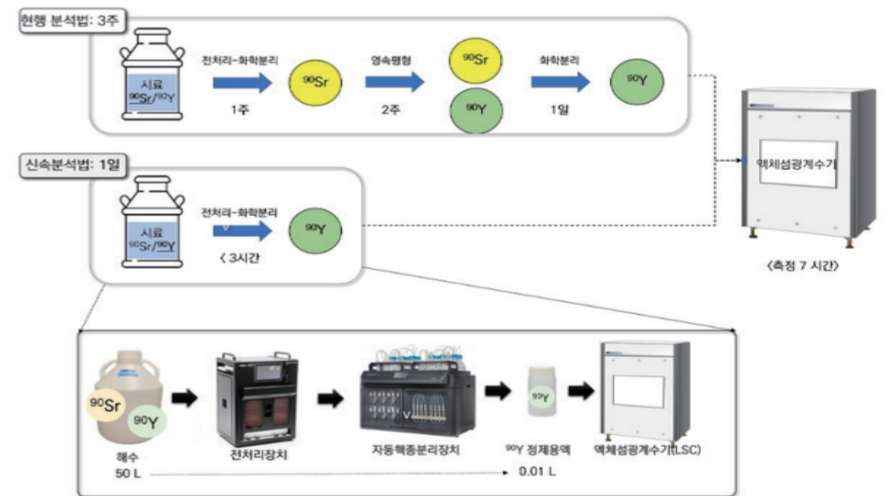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8월 25일(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한국과학

기술원(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경북교육청, 유치원 급식 지원 협력체계 구축한다!

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가져

경북교육청은 28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의 질 개선을 지원·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유치원 급식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이번 사업에 경북교육청과 경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수업자료 개발을 시작한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의 관리·감독의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다년간 유치원 급식을 관리·지원한 자치단체(경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부의 유·초·중·고 영양·식생활교육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수업자료의 개발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자주적인 식생활 관리 능력은 물론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중식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급식 지원 협력체계 구축은 유치원 영양·식생활 교육 콘텐츠의 부족을 메우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현장과 공유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학생 위한 온라인 진로 진학 설명회

2024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한 진로 진학 맞춤형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학생의 2024학년도 대입 준비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시 및 정시 대입 전형에 따른 특강 ▲학생·학부모 사전 질의답변 영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8일부터 시청 가능하고 추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꿈울림축제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모든 학생의 맞춤형 대입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1:1 비대면 화상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진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권역별 노무관리교육 실시



경북교육청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학교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노무관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집합교육을 재개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세부 일정은 △17일 포항교육지원청 △18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28일 김천 학생문화예술센

터 △29일 예천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각각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노사관계 이해 △교육공무직원 복무, 급여 등에 따른 업무 처리 △일선기관(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사건·사례 등이다.

특히 업무처리 시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은 업무 담당자들의 노무 관리 역량과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해 노무관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관련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교육공무직원과 업무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 참여 학교 신청하세요”

도내 공사립 중학교 대상... 9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북도교육청은 아침결식 학생들이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 학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은 전북지역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교직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도내 중학교 중 희망교 신청 학생이며, 학생 1인당 1일 3,000원씩 연간 총 19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다.

또 간편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6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아침결식이 많은 학교, 아침간편식 제공 장소 및 운영 인력 등의 운영 기반이 갖춰져 있는 학교, 사업담당자 및 구성원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남철/기자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학교폭력 통합지원체제 구축해 맞춤형 원스톱 지원

경북교육청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지원체제를 통합·일원화해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돼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 센터는 사안 처리, 피해 회복·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 학교폭력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학교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맞춤형으로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을 배치하고 ▲사안 처리 지원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관계 개선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며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각급 학교로 접수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지원관이 사안 처리 매뉴얼, 초기 대응 방법, 관계 회복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전문

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 요청 시 업무 담당 장학사, 전담지원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지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사안 조사 방법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꼼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Wee센터, 학교폭력회복지원단, 학교폭력화해조정단,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인·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학



생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돕는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제로 센터 운영은 학교의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피·가해 관계 개선 등 통합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우리 정책, 우리 손으로! 영등포구, 정책제안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아동·청소년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대회' 개최

영등포구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제안 대회'에 참여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더 행복한 영등포의 내일!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아동과 청소년도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구는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05년생부터 2016년생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

으로 정책 제안을 받는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면 가능하다.

이후 9월 말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5~7팀을 선정한다. 이어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발표 영상 제작, 제안 내용 보충, 팀별 토론 지원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실시해 발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본선 대회에서는 최종 정책 제안 발표 후 대상, 최우수, 우수 등 순위를 결정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부서별로 실현 가능성, 예산 등 검토를 거쳐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월 초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들과 구정 아이디어를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정책제안 대회를 통해 아동,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모든 구민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면서,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울 중구, 하반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7개 강좌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8일부터 하반기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렸다.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취업 경쟁력까지 얻을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된 유망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정보다 전문 분야의 자격증 과정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주민 수요까지 반영돼 의미가 깊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아트플라워 인테리어 지도사 ▲에어컨 살균 세정관리사 ▲한방 건강 차 전문가 ▲MBTI 심리상담사(주/야간) ▲미디어 중독 상담사 ▲분노 조절 지도사로 총 7개 과정이다.

교육은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수료생이 원할 시 관련분야로의 일자리 연계도 가능하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과정별로 교육 기간 및 장소가 달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강료는 전액(100%) 지원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반액(50%) 지원된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평생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수'에서 받는다. 홍보물 내 QR코드(QR) 코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선착순 마감이나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경력 단절 여성·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구민 등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한층 보강된 하반기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충정로(忠正路)에 충정(忠正)이 들어서다! 민영환 동상 이전' 사업 호평



서대문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충정로(忠正路)에 충정(忠正)이 들어서다! 민영환 동상 이전' 사업으로 경관행정(협업) 부문 최고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정로는 일제강점기에 죽점정(竹添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민영환 선생의 시호를 따 충정로로 바뀌었지만 선생을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은 없는 상태였다.

또한 충정공 동상은 1957년 안국동 사거리에 처음 세워진 뒤 1970년 돈화문 옆으로, 2003년 다시 우정충국 시민광장으로 옮겨졌지만 접근성이 떨어

어져 선생의 뜻을 기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정운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민영환 동상 이전을 제안했고 구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8월 충정로의 시작점인 충정로사거리 교통섬으로 민영환 선생 동상 이전을 완료했다.

구는 나아가 선생의 유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전만 동포에게 고향' 문구를 새긴 대형 해설석과 일대기를 담은 석재 벽을 설치했으며 동상이 경관을 바라보도록 배치해 나라에 대한 충심을 상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상 주변 공간에 나무를 심는 데에도 민영환 선생의 뜻을 담았다. 혈죽(선생의 유품함 아래에서 자라난 대나무)을 상징

하는 대나무, 울곧은 의지를 상징하는 소나무,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어 상징성을 부여했다.

특히 구는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민간 협업의 기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업에 함께한 주요 인사로는 정운재 교수와 민영환기념사업회의 이홍구 전국무총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민영환 선생의 증손녀인 민명기 작가를 비롯해 김영주 중근당 대표, 김용환 중근당산업 대표,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전 대상지 내에 지하철 충정로역의 대형 환풍시설과 도시가스 정압 시설 등이 위치에 동상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및 에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다.

구는 서대문구 새마을협의회, 국가보훈부, 서대문경찰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등과도 협업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민영환 선생의 유지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사방이 트이고 접근성도 용이한 곳에 자리하게 돼 보람되며 앞으로도 역사 문화 경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모토로 매년 국토, 도시, 경관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최만식/기자

성동구, 여름밤 문화 축제 '제8회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

문화와 낭만이 가득한 도심 속에서 사전공연을 비롯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와 썬2계더 상영

서울 성동구는 도심 속 자연 공간인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제8회 서울숲 힐링 영화제'를 개최한다.

서울숲 힐링영화제는 2014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성동구의 여름밤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아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9월 1일은 올해 4월에 개봉한 영화인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2일에는 서울숲 분위기와 잘 어

울리는 뮤지컬 영화 '썬2계더'를 상영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는 뮤지컬 등 사전공연도 열린다. 서울숲 힐링영화제는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돗자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름철 지친 마음을 다채로운 공연과 영화를 즐기면서 힐링하시기 바란다"라며 "불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문화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Refresh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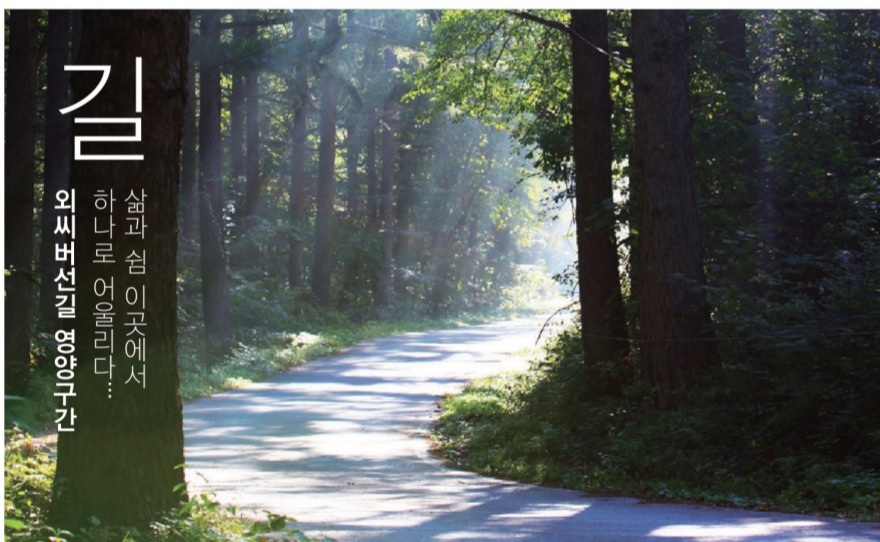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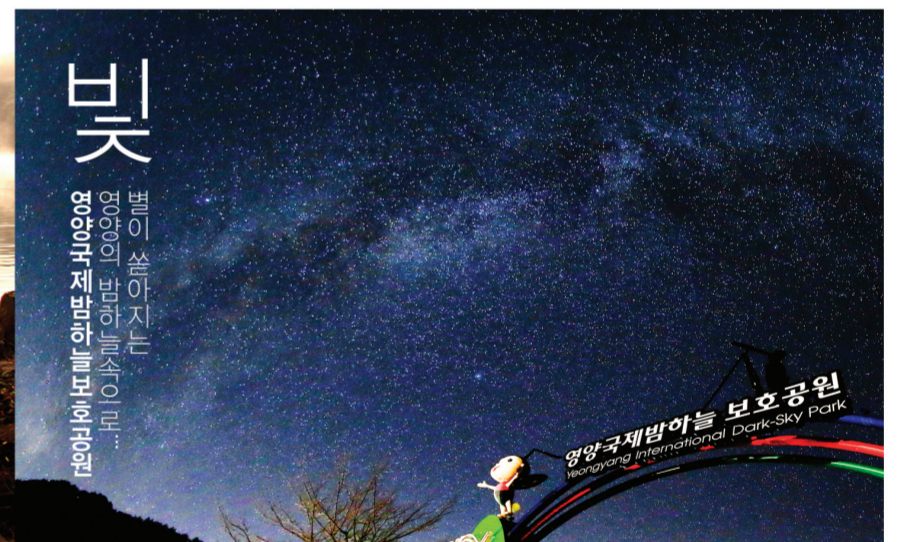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의미있게 영영하는



물

영양이 향하는
영양이 향하는
영양이 향하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영양이 밤하늘을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조향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